



교단 제63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거룩함을 회복하자' (딤전4:5)라는 주제 아래 은혜와 진리 수양관에서 열려 더욱 현신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좌측 아래 원내 사진은 총회원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신임총회장 김용덕 목사)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 앞장', 1천 5백여 총회원 '한 마음'



제63차 정기총회, 바른 복음전파 앞장

신임총회장 김용덕 목사

본 교단 제63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거룩함을 회복하자' (딤전4:5)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 화성

을 강조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했다. 계속해서 부총회장 최철권 목사의 기도, 서울강남지방회장 김종열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 진리교회 정도성 목사와 GNTC합창단의 찬양, 미국 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알튼 개리슨 목사의 설교(동역 최원기 목사)로 이어졌다.

알튼 개리슨 목사는 신 1:67 말씀을 본분으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디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저지 등 그릇된 신앙과 세상의 유혹을 고집하 물리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대로의 신앙을 견지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맡기신 사랑을 감당해 나갈 때 큰 부흥과 발전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개리슨 목사는 또 한국의 형제 교단의 부흥과 발전에 깊은 감사와 축복의 뜻을 전한 뒤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와의 협력관계 속에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개리슨 목사는 또 한국의 형제 교단의 부흥과 발전에 깊은 감사와 축복의 뜻을 전한 뒤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와의 협력관계 속에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총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너리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 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차명환 장로(전국장로연합회장), 서영조 목사(교단 재판위원장), 김복희 목사(교단 여성교역자국장)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일본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마코로 호소이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호소이 목사는 성령충만한 한국교회의 종회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신으로 종회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교단 총회장 표준호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표준호 목사는 정체위원회 조용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최철권 목사와 총무 김홍성 목사, 서기 신재영 목사, 재무 정부용 목사, 회계 정운기 목사, 총회장 표준호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이덕재 목사, 이병희 목사, 조종현 목사, 정의섭 목사 등 4명이 받았으며 전국장로연합회장 명호수 장로와 전국여성연합회장 배

정례 권사, 전국사모연합회장 차경애 사모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어 교단 회계 정운기 목사의 현금기도, 장로성단과 GNTC합창단의 현금송, 교단 서기 신재영 목사의 광고, 교단 증경총회장 신정균 목사의 축도로 1부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전회원은 기념촬영을 하고 저녁 만찬만찬 기도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를 함께 한 뒤 저녁 7시 30분 시무총회로 모여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 합격자 인준에 이어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시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으며, 62회 총회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63회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 회장 실무위원 자격인증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 등이 결의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한법 제 81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김용덕 목사, 부총회장에 정부용 목사, 총무에 양하석 목사, 서기에 진영갑 목사, 재무에 주덕영 목사, 회계에 황용연 목사가 각각 임후보하여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임되었다.

신임총회장 김용덕 목사는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현신해 준 총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

므로 바르고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목회현장을 만들어 가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단 사이비를 철저히 배격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혔다.

신임총회장 김용덕 목사 주재로 계속된 총회는 부산지방회를 비롯 어려 지방회에서 상정된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로의 평창변경과 관련 하나님성회 명칭이 하나님의교회 인성룡 이장고의 명칭과 유사해 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총회에 상정,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총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발언을 종합해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둘째날 이침 교단 정체위원회 조용목 목사를 감사로 하여 드린 이침예배에서 조 목사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회원들을 격려했다.

제63차 교단 총회에서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행정구역별 효율적인 지방회 통합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교단통합 이후 인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민연되어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혔다.



공로패 - 총회장 표준호 목사



공로패 - 부총회장 최철권 목사



공로패 - 총무 김홍성 목사



공로패 - 서기 신재영 목사



공로패 - 회계 정운기 목사

포토뉴스



- ① 교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갑신 목사는 지난 8일(목) 총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회기종 재번사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일일히 각종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 ② 교단 한법위원회 위원장 오규섭 목사는 지난 2일(금)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상정된 한법개정안을 검토했다.
- ③ 교단 예산위원회 위원장 경창호 목사는 지난 9일(금) 총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교단의 미래는 신학교의 육성과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교단의 앞 날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신학교 사업에 우리 모든 회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참여하고자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신학교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회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래는 지난 12월부터 후원회비를 모금해주신 교회들입니다.

- 거제순복음중앙교회(김창영 목사)
- 남원중앙교회(서정복 목사)
- 밤은빛교회(양요한 목사)
- 새 하늘교회(한광진 목사)
- 시흥순복음교회(차갑신 목사)
- 천안서북교회(오승욱 목사)

- 안디옥교회(배진기 목사)
- 제주국제순복음교회(박명일 목사)
- 제주순복음교회(표순호 목사)
- 제천순복음양문교회(김기진 목사)

(교회명 가나다 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619002-04-090632 / 예금주 배진기